

01 교회소식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로 질병뿐 아니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참 소망을 갖게 됐다.

02 생명의 말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하나님 공의 가운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했는지를 알아야 참 믿음을 소유해 구원받을 수 있다.

03 간증

“주님을 만나 화평한 가정이 됐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음의 깊은 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받아 행복하다는 김은숙 성도의 간증.

04 세계 선교

케냐 선교, 어제와 오늘

'2001 이재록 목사 초청 케냐연합대성회' 이후에도 계속되는 아프리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

만민뉴스

제638호 2014년 6월 1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행복을 찾은 성도들



현대인의 역병 우울증과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사진 왼쪽부터 심세섭 집사 부부, 탁재송 집사, 김경숙 집사 가족, 손순희 집사 가족, 켈리에스코바르 알자모라 성도, 신복래 집사.

증권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된 후 우울증, 불면증, 신경성 위장병, 화병 등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사람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을 때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다행히 그는 누나의 전도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 좀 살려 주세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후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을 때였다. 갑자기 눈에서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빠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마음이 숨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오랜만에 단잠을 잘 수 있었고, 우울증과 모든 질병이 사라졌다. 심세섭 집사(42)는 이러한 체험을 한 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 든든한 가장이자 충성스런 교회 일꾼으로서, 일터에서 축복을 받으며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에 빠져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무능, 고립, 허무 심지어 자살충동에까지 사로잡히는 정신장애이다. 단순히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흥미나 즐거움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기분 상태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기분 저하, 집중력 저하, 행동지연, 초조함, 자살사고 등

정신적인 증세와 더불어 신체적인 이상 증상까지 동반된다.

우리 교회에는 온갖 질병을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넘칠 뿐 아니라 현대인의 역병 우울증을 해결받고 천국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

손순희 집사(44, 여)는 삶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받던 중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우울증은 물론 역류성 식도염, 빈뇨증, 허리디스크까지 치료받았다.

빛보증을 잘못 서서 이혼까지 하게 된 탁재송 집사(58)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중 GCN 방송(www.gcnetv.org)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찬양, 성도들의 간증을 시청하며 삶의 낙을 얻게 됐고, 뛰면서 찬양하던 중 우울증을 치료받았다.

대장수술후유증, 중풍, 뇌수술후유증, 심장관막증, 관절염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던 신복래 집사(76, 여)는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에 걸렸다. 그런데 지인의 권유로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 예배 시 이 목사의 환자기도

로 많은 질병과 우울증까지 치료받았다.

남미 페루의 켈리에스코바르 알자모라 성도(25, 여)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이복형제들의 학대로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엿한 성인이 된 후에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페루만민교회에 전도돼 화상으로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게 됐다. 지난날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자 우울증이 사라지고 샘솟는 기쁨을 체험했다.

이 외에 고부간의 갈등과 출산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김경숙 집사(47, 여) 등 국내외 수많은 성도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권능의 기도로 우울증의 늪에서 헤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이 심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상은 우울증의 한 증상이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할 뿐 아니라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 또 천국 소망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됨으로 우울증이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과연 구세주의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일까요?

첫째, 사람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인 아담으로 인해 죄가 시작됐기에 그 죄를 대속하는 것도 사람이야 합니다. 천사나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지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사람의 죄를 대속했는데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죄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히 7:27, 9:12).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라’ 했지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력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인류의 역사를, B.C.(Before Christ) 곧 예수님 탄생 이전과 A.D.(Anno Domini) 곧 주후로 나눕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가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예는 모두 죄인이며,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빛을 많이 진 사람이 남의 빛을 갚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후예가 아니십니다. 곧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범죄한 아담의 후예가 아닐까요? 사람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잉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됐다’고 했습니다(마 1:18). 예수님께서 단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조상과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원죄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셋째, 구원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적군의 포로가 된 아군을 되찾아 오려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된 인류를 구하려면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힘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힘일까요? 죄가 없는 것이 곧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후예가 아니므로 원죄가 없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셨지요.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라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다’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으로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지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꼭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을까요? 인류는 아담의 범죄 후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한 대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려면 영계의 법칙에 따라 대신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지요. 이처럼 생명과 일체인 피

를 대신 흘려야만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셨지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피 흘리셨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피를 흘린다고 죄가 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깨끗한 피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구세주의 자격 조건을 온전히 갖춘 분이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사주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영계의 법을 어겼으니 그 대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사망 권세로부터 내어 주게 된 것입니다(롬 5:18).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오히려 원수 마귀 사단이 패망하는 길이며 예수님을 통한 인간 구원의 섭리가 성취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까지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만일 원수 마귀 사단이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지요. 이것이 만세 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풍요로운 에덴동산에서 마음껏 권세를 누리게 하시되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공의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육적으로 죽음에 이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저주는 첫 사람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 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죄인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 주면 됩니다. 즉 죄인이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는 아무나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로서의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세주의 자격 요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8:00 PM
주일 저녁예배	7: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사랑의 주님을 만나 어둠이 물러가고 화평한 가정이 됐어요”

김은숙 성도 (2대대 15교구, 34세)



2009년, 첫 아이 출산 후 6개월쯤 됐을 때 마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매우 우울했고, 남편과 싸우기 일쑤였지요. 남편은 착하고 성실하며 저만 바라봐주었지만, 저는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지 못한다고 남편을 힐난했고 이내 큰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잦은 불화와 이혼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았기에 가정만큼은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미움과 분노를 만들었고, 그 때문에 그 노력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지요.

제가 겪은 마음의 상처를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절대로 대물려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수십 권이 넘는 심리서적을 읽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의지하며 마음을 잡아보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이런 수고도 그때뿐,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올라오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이 자리잡은 내면의 상처로 인한 분노와 우울증을 해결하고자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요법, 트라우마 치료기법인 EMDR치료, 약물치료까지 동시에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오르지 않는 않지만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았지요.

약을 먹는 동안에는 남편과 싸우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속이 아프고 평소에는 머리가 텅 비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이제는 괜찮아졌겠지.’ 하고 약 먹는 것을 게을리 하면 어김없이 분노가 올라와 남편과 크게 다투고 다시 약을 찾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2013년 여름, 예쁘게 성장하는 아이를 보며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의학의 힘으로도 제 내면의 상처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마지막으로 신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기도라는 것을 해 본 적 없는 저였지만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제 마음을 신은 알아줄 거란 마음이 들었고, 그분께 묻고 싶었습니다. ‘난 왜 이런 부모를 만나야했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했는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언니에게 “나 이제 교회에 다녀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그럼 우리 교회 다니자.”라고 했지요. 저는 흔쾌히 그 주에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갔고, 7월 28일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성령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부터 마음이 후련해졌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주일성수를 하고 금요철야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제 이마 위로 하얀 벌레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길이 5cm, 폭은 1~2mm 정도 되는 기다란 벌레였지요. 순간 징그러운 마음에 벌레를 확 잡아 올렸는데 이마 속에 박힌 벌레의 뿌리까지 뽑혀져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20~30cm 정도 머리에서 길게 뽑혀져 나왔는데 그 뿌리 전체가 파란색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2013년 9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으니 권능의 2단계 푸른 빛으로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본 원인을 깨닫고 통회자복하니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져

저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주요 설교 중 ‘사랑장’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며 마음을 다 잡아갔지요.

내가 힘든 것은 ‘내 마음의 악 때문’이라는 말씀이 크게 와 닿았기에 세상 탓, 남 탓, 부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틈탈 때면 원망과 불평, 서운함, 미움 등을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 하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정녕 회개하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했고,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통회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지요.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결국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내 악으로 힘들게 한 부모님과 남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이것을 중심에서 깨닫자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님께도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참 사랑 곧 영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화평한 가정이 됐습니다. 아이의 정서도 안정돼 긍정적이며 밝고 총명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만민선교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의 변화에 감사해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게 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6 June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4.6.15~6.2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헛되고 헛되니 2-3 • 축복 6 • 심계령 1-5 • 믿음의 분량 1-3 • 지옥 1-4 • 십자가의 도 1-5 • 목자와 하나 • 온전한 심일조와 헌물 1-4 • 창세기 강해 106-107 • 우리 삶의 등불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6 (이수진목사) •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1/생명수 13 (전호준목사) • 영의세계 18 / 근본의 악 1 (이희선목사) • MIS강의 11 / 축복과 저주 (정구영목사) • 양선(김수정목사) • 육체의 결여 2 (김승신 전도사) • 행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목자님 (김병덕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요리 10 • 옛날 옛적에 5 • 모두 드려요 1-5 • 흥겨운 소리 5 • 아름다운 예배 3-4 • 만민지킴이 4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29 • 찬양드려요 22, 28-29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5 • 황기 29 • English 14-15 • 뷰티플레이프 4 • 플로리스트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연합대성회 3 • 회상 9 • 2013 기관장 교육 2, 3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아프리카 땅에 선포된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사랑을 베푸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당부이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권능의 역사를 베풀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써왔다. 현재 1만여 자립교회와 함께 책자, 신문, 방송을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다.

특히 CNN에 소개된 2000년 아프리카 우간다연합대성회를 필두로 파키스탄, 인도,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수십, 수백만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해외 연합대성회는 세계 선교의 기폭제가 됐다. 기사와 표적,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여 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선포했다.

아프리카의 관문이자 지리적으로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세계의 요충지인 케냐 선교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케냐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 집회

강사 이재록 목사는 2001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케냐 나이로비 우후루 공원에서 연합대성회를 인도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치료하는 여호와'에 대해 살아 계신 증거와 함께 전했다.

이재록 목사가 단에서 기도해 줄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자 이 모습을 본 회중들은 환호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나가

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으며,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에이즈를 비롯한 갖가지 질병이 치료됐다. 케냐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30만 명이 참석했으며 관계자들은 케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성회 실황이 케냐 국영 KBC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돼 성회에 동참한 인원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성회 전 목회자 세미나 시에도 단 한 번의 기도로 즉석에서 1천여 명이 치료되는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났다. 현지 주요 일간지에서는 '이런 기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큰 표적이 나타났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교계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교회가 만민의 지교회 및 협력교회로 가입했다.

아프리카 54개국을 대상으로 활발한 선교활동 펼쳐

이후로도 아프리카 곳곳에서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사람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경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담임)가 인도하는 손수건 집회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구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해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 영혼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만민국제성경대학을 열

어 성경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패밀리 TV를 통해서도 이재록 목사의 설교가 아프리카 전역에 방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의 다국어 신약서적과 '만민뉴스'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에서 열린 권능의 손수건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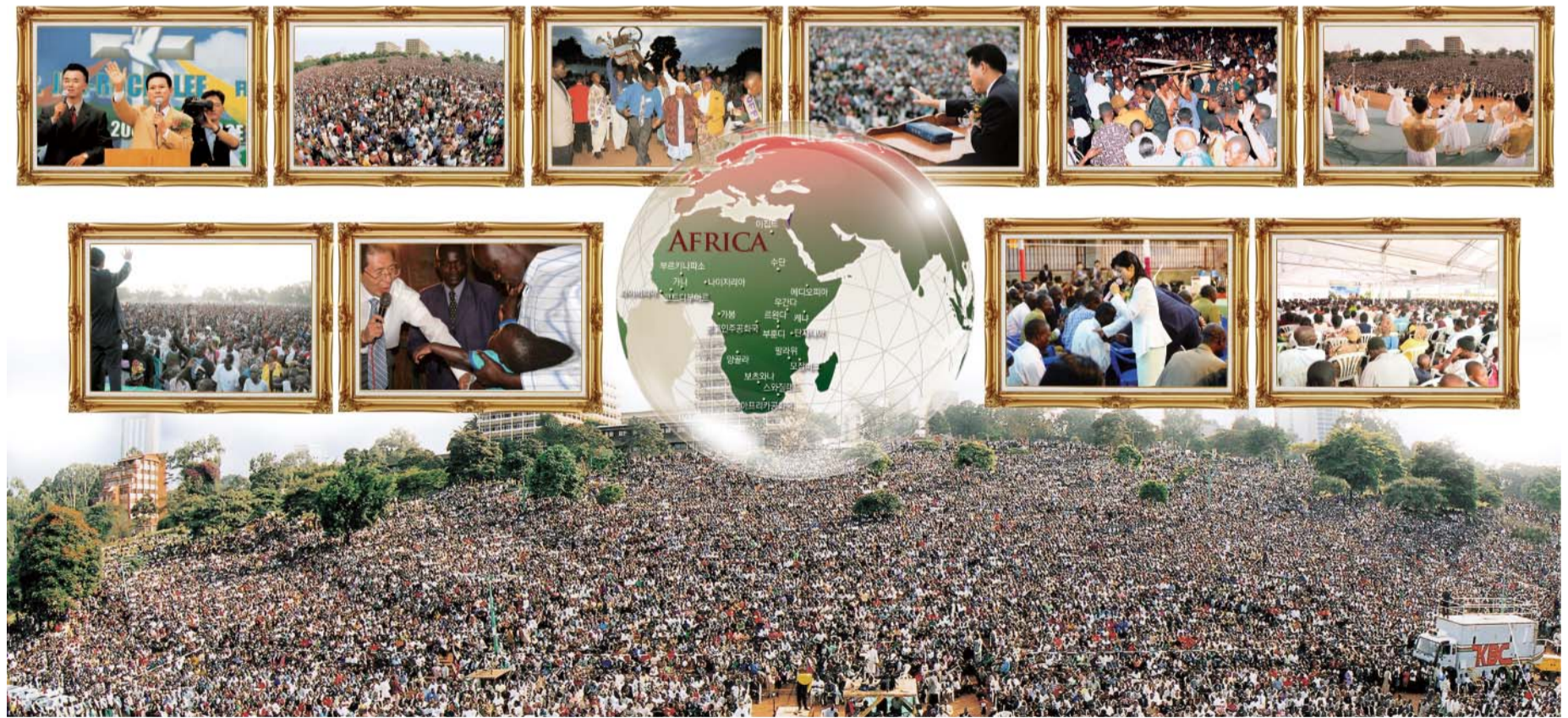
지난 5월 27일에는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찬양팀과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의 합창 위십과 현지어 특송으로 막을 열었다.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강사 이희선 목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함을 전했다. 그 뒤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들에게 일일이 기도해 주었다.

이를 통해 에반스 성도(47)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돼 목발을 짚고 다녔으나 목발 없이 걷게 됐고, 척추 주변 신경 압박으로 움직일 수 없던 로나 성도(32, 여)는 자유롭게 움직였다. 에밀리 울루치 성도(36, 여)는 만성 궤양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 네 차례에 걸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기도받은 때 수술로 인해 무겁던 다리가 가볍게 느껴졌다. 다음 날 담당 의사는 "이렇게 빨리 살이 재생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며 신기해했다.

이 밖에도 관절염, 고혈압, 가슴 통증, 고열 등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2001 케냐연합대성회 이후 아프리카 선교의 어제와 오늘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연합성경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3771-7970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전원맨션 2동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